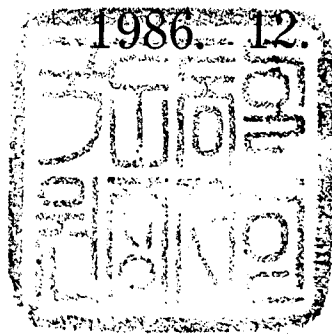


[忠武9000計劃資料]

南北韓住民의 意識構造比較



研究執筆責任

延世大學校 教授 崔 平 吉

國 土 統 一 院

目 次

1. 分斷時代의 意識構造 研究理論	3
2.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 파다다임	16
3. 國 家 觀	27
4. 統 一 觀	35
5. 政治·軍事觀	38
6. 社 會 觀	42
7. 南北韓의 政治·社會意識과 行動類型的 展望	47

1. 分斷時代의 意識構造 研究論理

南北韓의 比較研究는 社會科學이나 自然科學의 理論을 檢證하고 相互關係의 理論을 一般法則化하는 學問的 努力外에 分단을 克服하여 平和統一과 單一民族國家를 形成하기 위한 政策講究의 실천적 행동도 包含하고 있다. 그러므로 客觀的 分析에 의한 論理的 代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따름이다.

아울러 分단을 克服하기 위한 戰爭抑止 對話와 交流, 平和的統一에 이르는 과정에는 研究하여야 할 많은 課題가 있을 것이다.

戰爭抑止, 平和定着의 主체가 南北韓 住民이라 할 때 이들의 意識行動類型的 正確한 파악과 平和統一에 필요한 意識形成은 分단극복의 基底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 住民 個人水準의 思考와 行動樣式, 주민 개인으로 구성되어 公式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階層制 組織의 행동심리, 그러한 상이한 機能集團이 政治·社會的으로 綜合된 國家의 理論方向이나 體制管理 스타일은 모두 住民의 意識行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住民의 意識構造와 行動樣式은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차원에서 客觀的 論理的 分析과 分단극복의 맥락에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 比較研究를 시도함에 있어 분석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는 연구접근법의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 平和統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는 南北韓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있고 그 실상은 대개 理念·政策·管理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社會體制的 指導理念인 南北韓의 資本主義 自由理念體

制와 共產主義가 도입되어 定着化되어가는 과정을 파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理念의 變化는 形成된 政策內容이 실천될 때 國家目標로서 구체화되며 政策을 실현시키는 장치가 관리인 것이다. 이들의 理念·政策 관리가 南北韓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動的 視覺에서 실상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범위와 영역면으로 본다면 巨視的 次元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南北韓에 있어 資本主義와 막스-레닌주의의 定着化 過程이다. 中範圍面에서는 이들이 現實的으로 實現되는 과제로서 政策·形成·執行·評價過程을 組織하고 管理하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微視的으로는 조직내의 구성원 심리와 行動樣式을 역사적 문화소산과 理念體制와 政策次元, 또는 개인 가족배경에서 分析할 수 있다. 南北韓 研究가 巨視的 立場에서 규범적으로 이루어지든지 微視的, 中範圍的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研究되든지간에 최소한 도출된 이론이 正統性·一貫性·簡潔性·領域確定 풍요한 창의적 발견 등의 條件은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학문이든 실천적 학문이든간에 論理的으로 證明된 科學的 理論으로 밀받침되어야 하며 그러한 理論을 實證的으로 때로는 論理的으로 證明 可能한 相互連繫性이 있는 體系的 진술의 一般法則이 되어야 할 것이다.¹⁾

그러나 理論自體는 이렇게 體系的으로 명료하게 정리된 一般法則으로 定義된 것 외에 다양한 形態로 存在하기도 한다. 理論의 다양성은 分析過程에서 사용되는 技法과, 結果의 論理的 體系化作業으로 구성되어 있는 方法

註 1) Richard Rudner,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6), p.10.

Claire Sellti and Others,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66), p.48.

論과 도출된 결과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分析過程으로서의 方法論節次에 의거하여 結果로서 도출된 체계적 진술형태로 存在하는 理論은 分析論理의 완벽한 形式(Full Formalization of Formulations)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過程에서 理論은 合理的 陳述型, 計量的인 概念, 模型, 分析的 概念圖式(Analytical Conceptual Schemata), 概念의 範疇化(Classification Schemata), 類型化(Typology) 등으로 定立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²⁾

南北韓 比較研究에 있어서 簡潔性, 正確性, 一貫性, 對象領域의 廣域性을 確保하여 미래상황에 대해 豫見力이 높아야 하고 平和統一의 政策次元에서 統制·制御力이 있어야 한다. 南北韓 研究에서 다루는 대상영역의 規模와 性格에 따라 적용하는 方法論 體系도 달라지고 도출된 理論이 내포하는 說明度, 豫見性, 制御力 등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研究領域(Range, Scope)에서 볼 때 巨視的으로 分析하는 研究對象은 이질적인 理念, 思想, 權力의 정당성 등 價値判斷을 다루는 規範的인 것이 많은 편이며 方法論 體系 또한 歷史哲學的·文獻分析的 接近法을 포함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巨視的 範圍에서 도출된 이론을 巨視理論(Macro Theory), 規範理論(Normative Theory), 또는 汎世界的 普遍理論(Global Universal Theor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計量的 指標化를 통해 正確性을 기하거나 南北韓의 比較分析을 시도하는데 있어 形而下學的·沒價值的 分析體系를 사용하는 理論은 微視理論(Micro Theory, Narrow Gauge Theory), 혹은 形態理論(Behavioral Theory)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南北韓住民의 比較分析에서는 心理類型, 行動基準, 動機賦與, 組織構成員間的 相互行爲, 葛藤理論 등이 그

註 2) Richard Rudner, Ibid., pp.19~50.

대표적인 例이다. 그러나 타당성이 높은 巨視理論과 正確성이 높은 微視理論을 동시에 살리는 中範圍理論 (Middle Range Theory)이 있어 상이한 南北韓의 比較分析에서는 組織·構造·機能·政策決定理論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構造理論 (Structural Theory) 또는 中範圍理論이라 한다.

이를 몇학자의 概念을 南北韓研究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巨視理論과 微視理論은 그 각기 長·短點이 있어 그 이론적 취약성을 相互補完하기 위해 中範圍理論이 거론된다 하나 뚜렷한 補完節次나 條件이 充足되어 中範圍理論이 생성된 것은 아니며 研究對象과 接近方式에 따라 절충 혹은 혼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이론의 中범위이론, 동양의 論語나 蘇東坡에 의해서도 中庸的 觀察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개념상 巨視, 微視, 中範圍理論의 相互補完을 도식화하지만 이론도 출과정에서 구체화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巨視理論의 理念·價値·規範이 中範圍理論의 組織構造의 性格을 定型化시키며 組織關造는 개인과 소집단의 行動에 影響을 주는 상호관계를 규명함에 따라 세유형의 이론은 補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補完的인 研究接近으로 南北韓을 研究하

註3) David Apter and Charles F. Andrian(ed.), Contemporary Analy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Inc., 1972), Introduction, pp. 5~20.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PSR, Vol. LXIV, No. 4 (December, 1970), pp.1033~1044.
Gerard Radnitzky, Contemporary Schools of Metascience (Chicago, Illinois: Henry Regenery Co., 1973), pp.305~307.
崔平吉, "초기행정학의 파라다임" 「연세행정논총」 서울, 연세대학교, (1985), pp.27~28.

< 表 1 >

範圍와 方法論의 分類

分 類	Apter 分 類	Sartori 分 類	Radnitzky 分 類	南北韓研究
巨 視 理 論	規範理論 (Normative Theory) 規範 · 理念 · 價値 통치권 관계 규명	汎世界理論 (Global Theory) 廣域의 이질국가 比較, 보편이론 추구	歷史觀의 形而上 學 (Metaphysics of History). 倫理觀 研究	南北韓 理 念 · 歷史觀 · 正統性 · 倫 理
中範圍理論	構造理論 (Structural Theory) 政府, 教會, 正黨, 統治組織 分析	中範圍理論 (Middle Range Theory) 同質國家比較, 一 般法則과 概念의 범주화 추구	歷史觀속의 世界 史 (Universal History) 歷史觀 에서 도출된 世 界史	南北韓統治 構造論, 政策過程組 織.
微 視 理 論	行態理論 (Behavioral Theory) 개인, 소집단의 心理, 行動, 葛藤, 動機分析	狹義理論 (Narrow Gauge Theory) 일국가대 일국가 비교 특정개념화 추구	人間學 (Human Science) 文化人類學, 修辭 學研究	住民心理, 意識構造, 行動樣式

면서 研究者의 認識視角이 副次的으로 添加되어 研究結果의 正確性和 일관성을 強化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 研究, 특히 北韓研究에는 價値判斷이 개입되어 北韓을 부정적성향으로 보아 그 부정적 · 파멸적 예견을 가속시키는 관점에 研究의 視角을 두는 保守主義的 性向이 있다. 이는 주로 6.25를 경험한 세대 혹은 理念

을 研究하는 巨視的·規範的 研究을 시도하는 범주에 속하는 研究者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研究에서 나온 결과는 政府 社會組織에 수용과 공감의 폭을 넓히며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의한 研究者의 자유분방한 서구적 沒價値 接近理論에 중화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구의 行態學的 接近法에 영향을 받은 研究集團은 北韓을 價値中立의 입장에서 因果關係의 실제 분석을 시도하려는 自由主義的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北韓 실상을 嚴格한 價値中立의 입장에서 研究할 때 나이브한 사고와 서구적 모형으로 조명할 때의 危險負擔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나 傳統的 規範接近論者에게는 分析의 論理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在外 北韓研究家는, 예컨대 美國이나 유럽의 大學研究家, 랜드·후버·부르크스 研究所 등은 휴전선을 머리에 두고 生死의 기로에서 生活하고 研究하는 保守·進歩派, 그 어느 集團도 망라한 韓國의 北韓 研究의 심리와는 매우 다른 次元에서 研究하고 있다. 대부분 수천마일 떨어진 南北韓의 긴장심리를 沒價値的 分析立場에서 강대국의 國際秩序 均衡維持라는 立場에서 南北韓을 分析하고 있는 것이다.

傳統的 接近法과 保守的 觀點, 沒價値的 接近法과 多元論的 觀點, 강대국의 분석시각을 갖는 研究者의 시각외에도 韓國의 경우 南北韓研究에 있어 情報分析에 주력하는 國家情報分析家, 개념정의에 역점을 두는 研究家, 北韓의 감각을 갖고 있는 北韓背景을 가진 分析家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資料의 正確性和 長期的 展望의 이론도출이라는 相互補完으로 研究의 심도를 깊이하고 있다.

그 結果는 어쩌면 토마스 쿤의 paradaim에 비유될 수 있는 南北韓研究 특히 北韓研究의 原型理論, 혹은 母體理論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쿤의

母體理論은 인식여하에 따라 여러 意味로 定義될 수 있는데 그 자신도 인정한 것처럼 批判論者들이 내린 定義에 의하면 22개의 범주로 구별된다고 한다. 母體理論을 巨視的·中範圍的·微視的 범주로 나누어 概念을 定義하면 利解하기 용이하고 또한 相對的인 觀點에서 社會·科學分野, 특히 行政學을 조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Frame of Refererces)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巨視的 次元의 坤의 파라다임概念은 주로 物理學을 중심으로 본 自然科學에서 도출된 것으로 특정학문분야에 있어 科學者社會에서 널리 認定되고 공유되는 共通的 信念, 價值, 소명의식, 기법의 총체로 풀이된다.

(Entire Constellation of beliefs, Values, Techniques, Characteristic Set of beliefs and Preconceptions, all the Shared Commitments of a Scientific Group)⁴⁾ 正常的 學問 혹은 科學이 과거에 성취된 學問의 업적이고 未來 學問研究의 기반이 된다면, 母體理論은 既存科學이나 學問業績 그 자체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이적인 學問的 業績으로서 未來의 學問研究에 새로운 座標가 된다고 하여, 이를 學問的 世界觀의 變革으로 본다. 또한 母體理論인 파라다임이 그 生成過程과 使用된 接近法이나 도출된 理論의 性格面에서 과거 學問과는 전혀 다른 觀點을 보여줌으로써 學問의 革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形而上學的 概念으로서의 파라다임은 상징적 기호표현 (Symbolic Generalization), 形而上學的 概念理論 (Metaphysical Paradigm),

註 4) Thomas S.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186.

Thomas S.Kuhn, The Essential Tension, Selected Studies in Scientific Tradition and Change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Second Thoughts on Paradigms, p.294.

正確·簡潔·一貫·應用性을 指向하는 價値, 規範의 表象 (Philosophical Examples) 등으로 表現될 수도 있다. 學問的 價値體系나 學問的 觀點의 變革으로서 認識되는 패라다임은 따라서 過去의 패라다임의 擴大·適用·蓄積의 產物이 아니라 內容·方法·適用面에서 전혀 本質的으로 다른 基本變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專功分野의 學問觀이 이처럼 變革的인 것으로 認識되는 특정시기의 또는 영원한 古典으로서 패라다임이 存在하고 있는가는 具體的인 理論檢討에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패라다임은 過去理論을 革罷하고 새롭게 代替된 보다 나은 理論自體를 의미한다 하겠다. 새롭게 代替된 理論은 巨視的次元의 科學者世界에서 認識된 새로운 價値信念인 패라다임의 下位體系로서 科學者들이 相互認定하는 본보기 理論 (Shared exemplar)이다. 본보기 理論은 分析過程으로서의 接近方法論이나 結果로서의 理論이 결합된 내용이며 다양한 學問分野의 特性을 內包하고 있어 專門的 系列理論과 (Disciplinary Matrix)과 時事的이고 敎育的인 모형 (Heuristic Model)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具體的 예로서는 托雷미의 天動說 (Earth Centered Ptolemaic Cosmology)과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說 (Sun Centered System of Copernicus), 다윈의 進化說, 뉴턴의 運動法則 등을 代表的으로 들 수 있다.⁵⁾

한편 社會學的으로 패라다임을 규명할 경우에는 技術的 接近方式 혹은 技法과 社會·政治的 有用性을 包含한 社會文化의 한 속성으로서 뚜렷한 社會現象을 說明하는 理論을 예시할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은 社會現象의 유사관계규명, 具體的인 問題解決方策, 類推와 比喩의 能力, 즉각적 適應力이

註 5)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op. cit., p.186.

Kuhn, The Essential Tension, op. cit., p.297.

있는 모델 등으로 구성된 이론이어야 된다고 한다.⁶⁾

과학자 세계에서認定되어共有된科學的價値信念, 方法과 理論面에서 본보기 理論과 모델이 되는 paradigms의 微視的 側面은 이론도출의 장치나 도구(Vehicle or Instrument)로 表現될 수 있다. 예컨대 달톤의 化學理論을 새롭게 발견된 實驗法則이라기 보다는 繼續的 化學研究나 處理를 可能하게 하는 새로운 方法으로 보는 것과 같이, 微視的 paradigms의 概念을 具體的으로 專門分野의 問題를 풀 수 있는 方案이나 解答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E=MC^2$, $\Delta^2\psi + 8\pi^2m/h^2(E-V)\psi = 0$, $Y = \alpha + \beta_1X_1 + \beta_2X_2 \dots \dots \beta_nX_n$ 등의 具體的 解決方案을 제시하는 計量的 模型이나 方程標(Exemplar)와 같이, 革命的 paradigms 理論이나 觀點을 창출할 수 있는 力적 技法, 도출된 paradigms 理論의 適法性·應用性을 評價하는 微視的 側面의 母體理論으로 定義할 수 있다.⁷⁾

쿤의 paradigms 理論은 自然科學은 물론 社會科學에 있어서까지도 學問觀과 理論의 構造와 機能에 있어 영원한 古典으로 남을 수 있는 본보기 원형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그 理論에 立脚하여 研究者의 研究業績을 조명할 수 있는 엄격한 理論的 基準을 設定하는데 心을 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理論探究에 人爲적 強요나 教條的인 影響을 줄 염려 역시 없지않은 것이다.⁸⁾ 學問의 觀點, 본보기 理論模型, 혁신적 이론도출의 技法·道具·方程標의 總칭으로 사용되는 原型, 혹은 母體理

註6) Barry Barnes, T.S.Kuhn and Social 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p.119~120.

7)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Ibid., p.200.

Kuhn, The Essential Tension, Ibid., p.229. p.297.

8) Barnes, op.cit., p.13.

論으로서의 패라다임은 그 生成過程을 규명함으로써 性格을 좀더 正確히 理解할 수 있고, 더불어 自然科學은 물론 社會科學, 특히 行政學의 獨特하고도 偉力적인 理論探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패라다임의 生成過程은 既存의 패라다임이 敎科書적인 일상 理論으로서 定着되어 축적적 學問의 속성으로 存在할 때, 여기에 도전하는 이단적인 소수이론이 生成되는 데서 연유한다.

패라다임이 경이적이고 혁신적인 학문관, 이론, 모형, 방정표 등의 요소로 생성된 후에 세속적인 일상적 科學用語로 使用되거나 정상적 학문으로 일상화되면 이 시기의 패라다임은 이미 正常的 學問으로 定着되고, 專攻分野에 적법한 方法, 문제 파악의 길잡이, 具體的 학술문제 해결의 關鍵으로 일상화되면, 이 시기의 패라다임은 이미 正常的 學問으로 存在하는 후기 패라다임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교과서식으로 蓄積된 정 규학문에 대해 새로운 淸단적 理論이 科學者社會의 소수의견으로 나타나서 既存 學問體系의 저항과 이단적 取扱을 받으면서 과거이론에 도전하게 되는 현상이 發生하게 된다. 이 소수의견의 理論을 異端理論 혹은 變則理論 (Anomaly)이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이단적 變則理論은 一般理論으로 定着되어 있는 후기 패라다임에 도전하여 學問的 긴장과 저항속에서 學問的 위기감을 造成하는 가운데 패라다임이 생성되어가는 萌芽期이며, 辨證法上 正·反·합의 反理論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쿤에 의하면 이러한 反理論으로서의 異端的 시도는 專攻學問分野의 주요 젊은 학도의 기술, 예지, 천재적 재능에 의해 이루어 지는 바, 그들은 既存의 理論이나 方法에 의혹을 느끼면서 정교한 실험장치, 선별된 용어, 정련된 分析技術과 관찰, 精確한 概念을 提示하여 既存 패라다임의 內容이나 接近

方式에 變化를 일으키고 最終적으로는 過去 패라다임의 폐기와 新패라다임의 代替로써 學問에 순수한 창의적 이론을 첨가시키게 된다고 한다.⁹⁾

이리하여 萌芽期의 異端的 理論은 그 혁명적 독창성과 정교성으로 인해 과학자 세계에서 多數意見으로 公認되고 受容될 때, 새로운 패라다임으로서 方法節次, 技法, 理論, 學問觀으로서의 본보기이론, 母體·原初理論으로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패라다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두가지 상반되는 着想이 있는데, 즉 原初的 母體理論은 과거의 蓄積된 學問에서 파생된 여러 學問的 意見이 수렴된 단일사고와 分析體系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으로서 學問의 傳統性을 강조하는 收斂理論 (Convergent Thinking)과, 과거학문의 蓄積과 傳統性을 타파하고 새로운 分析節次 도구로써 개방적이며 융통성있는 多樣한 사고를 하여 母體理論을 도출한다는 擴散理論 (Divergent Thinking)으로 대별된다. 收斂理論의 정당성은 모든 창의적 이론은 過去敎育과 理論의 蓄積위에서 수용되고 인정된다는 學問의 現實的 傳統主義에서 연유된다. 學問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조명해 보면, 아무리 위대한 학자에 의해 창출된 혁명적 理論이라 해도 실제로 그러한 學問的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혁명적 위력을 발휘한 理論은 持續적으로 遂行되어온 學問的 努力·學術交流속에서 이루어진 學問의 合意點에 입각한 正常的인 在來의 諸學問의 收斂·蓄積에서 形成된 創意的인 이론이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傳統主義 收斂理論도 혁신적일 수 있으며, 過去理論이나 技法을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代替될 수도 있다.

註9)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Ibid., PP.66 ~ 67.

그러나 이런 경우가 直接的으로 發生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고, 傳統의理論은 새로운 理論이 形成될 수 있을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 이론도출의 전단계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過去學問의 傳統的 基盤에 입각한 철저한 研究만이 過去傳統理論을 혁파하고 새로운 혁명적 이론도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아 蓄積的 傳統收斂理論을 paradigms의 기본착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多樣한 사고와 接近으로 과거의 理論을 폐기함은 물론, 既存의 傳統的 學問體系로써는 검증하고 법칙화할 수 없는 새로운 실험·분석기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理論과 學問觀을 혁명적으로 생성시킨다는 paradigms 착상이 擴散理論인 것이다.

paradigms 생성에서는 이 두가지 착상이 相互競爭的으로 공존하는 바, 새로운 paradigms가 발생할 당시에는 교과서적인 一般理論으로 傳統主義 收斂理論에 대해 혁명적 이론접근법을 開發하여 徹底하게 否定함으로써 新paradigms가 形成되어 最終的으로는 擴散理論이 마무리를 지어준다는 의미에서 收斂理論과 擴散理論간에는 근본적인 競爭과 긴장이 原則的으로 存在한다고 한다.

收斂과 擴散的 着想의 競爭的 긴장속에서 專攻分野의 학문관, 이론, 기법에 이르기까지 혁명적 변화를 통해 본보기이론, 原初的 母體理論으로 成長하는 뚜렷한 독창성을 견지한 南北韓研究가 비록 상대적인 관점이긴 해도 存在해 왔느냐,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정립되었느냐 하는 것은 음미해볼 만하다. 특히 北韓研究에 있어 研究結果의 오류를 극소화하고 예견과 제어기능을 극대화하여 國家的 次元의 政策代案을 提示하는 學問的狀況에서는 北韓研究의 paradigms가 분석관점, 이론과 접근방면에서 창

출되어야 할 것이 절실이 要請된다 할 것이다.¹⁰⁾

傳統的 蓄積理論이나 擴散的 收斂이던간에 본보기가 될 수 있고 母體理論이 될 수 있는 效果的 研究는 미시적 次元의 研究실체를 形態接近法으로 分析하면서 역사·가치체계의 규범적 시각에서 규명해 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研究의 具體的 실마리는 바로 南北韓 住民의 意識구조의 실증적 研究와 規范적 비판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

註 10) 필자의 초기행정학의 파라다임, 북한연구의 분석시각에서 이러한 주장을 필자는 계속해온 바 있다.
崔平吉, “共產主義研究方法論”, 서울, 「北韓」 1985, 1월호, PP.195 ~ 202.

2.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 패러다임

개인이 家庭·社會·國家組織과의 生活接觸에서 習得된 行動倫理, 心情, 生活 思考가 變化되거나 表出된 현상이나 태도를 意識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행동과 사고의 주체이나 주위의 環境과 性格에 따라 자신이 思考하고 行動하는 반경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態도와 感情을 형성하고 주위에 適應하며 必要時에는 直接的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인간이 家庭, 친구, 學校, 教會, 職場, 社會組織과의 接觸過程에서 형성하는 이들 組織單位에 대한 態도와 行動의 양상이 바로 그의 社會觀이며 이를 또한 意識化나 社會化 過程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政治參與·政治體制에 대한 태도나 觀點은 政治意識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社會·政治文化圈에서 전체 國民의 集合된 意識을 國民의 政治·社會意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個人의 태도·觀點, 가치관 형성과 행동유형 결정의 의식과정에는 個人이나 集團이 주위에 適應·修正하여 스스로 意識化되는 自然的 意識化도 있지만 獨特한 理念, 價値觀, 文化體系內에서 人爲的 통제작용에 대한 當위적 태도와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는 他律的 意識化도 存在하게 된다. 社會·政治意識은 아마도 이들 두 요소가 複合的으로 存在하며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意識이나 政治意識은 의식화과정을 論理的으로 검증하는 認識論的 分析의 對象이 될 뿐만 아니라 형성된 의식유형이 個人이나 社會全體의 價値規範體系에서 분배 합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의 當爲性에 대한 檢討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즉, 政治·社會意識은 規範的 研究와 實證的 分析方法이 동시에 필요한 것

이다. 아울러 實證的, 科學的 分析方法에는 歷史的인 脈路에서의 理論的 基盤위에 社會構成員인 인간이 자신과 주위를 의식화하는 과정과 結果를 經驗的으로 追跡하고 정리하는 研究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實證的 研究를 통해서 意識化되는 結果의 因果關係를 규명하고 보다 바람직한 태도나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關聯 變因을 統制·調整하는 것은 정치·사회 의식을 研究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개인이 처한 物理的·社會的, 知的環境 속에서 他人과의 接觸, 자신의 수양과 인간적 성숙을 위한 自律的 努力과 說得·宣傳의 他律的 誘導에 따라 자신의 意見이나 感情을 修正·調節 適應한 구체적 내용을 意識·行動 類型으로 본다면 經驗的 분석으로 의식과 태도를 把握하는 것이 政治·社會意識 研究의 核心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社會意識 研究에는 개인의 幼年期, 壯年期, 老年期를 통해 친구·家族·教會·學校·職場을 중심으로 형성된 一生 週期(Life Cycle)의 意識化 心理研究등이 오늘날 태도·의식연구의 重要부분이 되어 있다.¹¹⁾

歷史·規範的 接近法과 經驗的 實證研究의 종합적 接近 위에서 集團으로서의 世代, 階層의 相異한 態度·意識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의 緩和作用등을 社會·政治意識 研究의 重要課題로 하여 研究가 進行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社會·政治意識 研究에는 意識의 形成過程에 관련된 變因을 실증적으로 체계화시키고 형성된 의식·태도의 성격을 把握하여 社會規範, 倫理的 體系와 연결하여 相互 補完하게 되는데 微視的 次元에서는 個人의 意識體系를, 巨視的 次元에서는 社會全體의 意識體系를 수정하고 中範圍的 次

註11) M. Brewster Smith, Social Psychology and Human Value (Chicago, Illinois : Aldine Publishing Co., 1969), pp.82-96.

元에서는 政治投入 作用이 사회·정치의식의 최종적 관심사가 아닌가 한다.

분단 40年の 結果인 상이한 理念과 體制로 定着化된 南北韓의 政治·社會·文化體系에서 個人·組織·社會·國際關係에서 個人과 國民 全體의 政治·社會意識과 行動類型은 그 나름대로 형성되어 行動化되고 있다. 巨視的 次元의 理念·國家觀의 形成을 위해 그에 일치하는 統治裝置를 마련하여 개인과 주민의 사고와 행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자연적으로 습관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個人과 集團의 心理와 價值體系에 의한 政治·社會意識은 統制管理裝置를 변형시키고 理念과 國家觀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南北韓 住民의 政治·社會 意識의 性格과 行動 類型을 實證的으로 분석하며 社會體制, 理念, 政治 價治體系의 맥락에서 說明 補完하고 平和統一이 가능한 代案策 摸索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本 研究의 조사대상을 설명하면 1977年에는 全國 大學을 人文·社會·自然·藝體能·男女·公私立으로 나누어 全體 學生數의 1%에 해당하는 3,000 명을 無作爲 多段階 표출에 의한 標本調査를 實施하여 意識構造를 分析하고 1978年에는 賃金 10萬원 未滿의 高卒以下 20代 單純 勞務者를 전국 工業 團地別, 職種別로 多段階 無作爲 표출로 1,300 명을 선정하여 産業條件에 관한 내용을 添加하여 意識·행동유형을 測定한 바 있다. 또한 1979年에는 서울 시내 全 高校生 350,000名中 3,500名을 동일한 통계절차를 거쳐 표본 추출하고 高校生의 教育實態 問項을 添加하여 實態調査한 바 있다.

후속적으로 1979年の 30代 이상 국민 意識조사, 1981年 現役·豫備役 將兵 意識調査 1982年에는 全國民을 對象으로 全體 國民意識을 測定 調査한 바 있고 1985年에는 內務部 公務員 3,447名을 표본조사한 바 있다.

北韓의 경우 분단상황 때문에 自由로운 設問調査를 實施할 수 없으므로

北韓地域內的 住民 意識調查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北韓 歸順 人士를 中心으로 應答者가 北韓에 거주하고 있었던 狀況에서 設問에 應答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1982年과 1984年에 걸쳐 104名을 選定 設問內容은 크게 國家觀, 統一觀, 社會觀, 民·軍關係 등으로 나누어 調査를 實施하여 韓國國民을 상대로 한 동일한 統計節次에 따라 分析한 것이다. 參考로 研究對象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表 2 >

(表 2)

研究對象者 現況

51.5.21 parents X

年 度	對 象 者	人 員 數
1977	全 國 大 學 生	3,000 名
1978	全 國 高 校 生	3,466 名
1978	產 業 勤 勞 者	1,210 名
1979	30 代 以 上 國 民	2,389 名
1981	現 役, 豫 備 役	13,658 名
1982	全 國 國 民	10,290 名
✓ 1982, 1984	北 韓 歸 順 者	104 名
1985	內 務 部 公 職 者	3,477 名

한국인의 社會意識은 傳統的으로 東洋的 社會生活 패턴에 儒教的 生活規範의 影響을 받아 形成하여 西歐 近代化過程의 經驗에서 나온 產業社會의 社會意識과 融合한 複合的 社會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10代, 20代의 강한 西歐的 社會意識化 傾向과 30代, 40代 이상의 강한 東洋的

社會意識패턴에서 相對的 觀點의 양극화 현상의 共存이 뚜렷이 표시되고 있다.

西歐化의 概念을 産業化, 民主化, 機能의 分化和 專門化, 合理的 個人主義, 都市化 등으로 설명할 때 韓國社會는 점차 西歐의 社會化過程을 답습하고 있으며 意識體系 역시 서구사회의식과 유사한 方向으로 흐르고 있다. 다만 傳統的 東洋社會의 價值體系를 저변으로 하여 西歐社會로 변모되기 때문에 韓國의 西歐社會意識化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産業化 過程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階層間, 世代間, 地域, 學歷, 職業別 등에 의한 葛藤이 발생되며 이는 國家社會體制의 持續的 發展을 위해 肯定的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20代 産業勤勞者와 大學生階層을 學歷面과 經濟所得面에서 社會意識을 比較하면 經濟的으로 富裕한 知識層 家庭의 大學生 思考行爲類型은 知識面이나 經濟與件으로 中間水準의 産業勤勞者의 意識構造와 비슷하고 中間階層의 大學生 역시 中間階層의 産業勤勞者와 비슷한 思考와 行動을 하고 있다. 매우 貧困하고 學歷이 낮은 産業勤勞者는 여유있는 産業勤勞者의 행동유형에 일치하는 傾向이 있고 이는 다시 貧困한 低學歷 家庭出身의 大學生의 思考와 일치하는 것이다.

家庭이 약간 가난하거나 아주 가난한 大學生 階層일수록 國家政策에 批判的이고 자기가정의 社會的 批判性向이 짙은 高卒이나 大卒 背景을 가진 産業勤勞者는 低所得層의 背景을 지닌 大學生의 意識 및 生活樣態(Life Style)와 동일하든지 그 下位屬性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經濟的, 教育的 背景면에서 大學生中 低所得階層과 그와 동일한 위치에 놓여있는 産業勤勞者 集團이 社會意識面에서 가장 批判的이고 不滿

을 가진 社會集團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中卒이나 國卒은 매우 順從的이고 自己의 職業이나 賃金에 滿足을 표시하며 현실적으로 技術者가 되어 스스로 社會의 上位階層에 進入하려 한다. 그러나 無學徒 低學歷의 產業勤勞者는 學歷이 높은 階層의 思考와 接近하여 同一한 思考와 行動을 가지려 한다. 따라서 극과 극은 일맥상통하는 傾向이 있다는 사실이 韓國의 低所得 產業勤勞者의 階層間의 사고행동에 適用된다고 볼 수 있다.

學歷, 性別, 賃金滿足度, 職業滿足度, 國家의 社會·經濟政策의 觀點차이, 雇傭主에 대한 親密度등은 서로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어 앞으로 高學歷 低賃金の 產業勤勞者와 기타 社會階層間의 알력이 深化될 것이 상상되며 이들의 不滿要件이 集團的 行動으로 연결되고 中卒, 國卒學歷이 產業勤勞者를 선동하고 社會의 다른 階層이나 要件이 충동질할 때 低所得層 產業勤勞者의 行動은 지극히 急進的이고 破壞的 要因이 될 수도 있다.

즉 進歩, 保守, 中間의 階層이 混合되어 있으면서 世代間의 社會意識은 東洋的 傳統과 서구생활 양식의 가치체계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世代는 그들의 教育水準, 經濟生活狀態에 따라 社會意識面에서 韓國社會의 發展에 肯定的·漸進的 態度를 취하느냐 아니면 否定的, 極端的 態度를 갖느냐 하는 행동유형을 유발시키는 傾向이 있다.

所得面에서 자신이 스스로 認定한 主觀的 判斷에 의한 應答을 보면 調查對象別로 보거나 調查時期別로 볼 때 共通的인 點은 普通以上 부유하다는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經濟成長이 急速化되던 1970年代 後半以後부터 物量的인 豊富性이 과거보다 成長된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富裕上流, 中産, 貧困階層으로 서서히 階層別 隔差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經濟發展에 따른 所得增大를 가져왔는데 앞으로의 政府 經濟政策이 계속 經

濟成長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勤勞者 處遇改善에 優先權을 둘 것이냐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經濟成長과 勤勞者 처우개선과 병행할 것을 주장하나 現在 職業에 不滿足인 産業勤勞者일수록 勤勞者 우선 原則을 주장하는 傾向이 있다.

低所得, 低學歷의 20代 産業勤勞者들은 國家의 社會經濟政策이 低所得層이나 中流層 等 國民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데 보통은 同意를 하지만 두드러진 현상은 賃金에 滿足할수록 國民 모두를 위한 것으로 보는 傾向이 높다. 자기가 받는 賃金에 不滿足인 勤勞者는 자기들의 目標追求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며 産業勤勞者의 미래의 生活向上에 國家支援이 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시하는 經濟政策은 成長 우선보다 勤勞者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韓國人の 경우 宗教性向은 점차 어떤 宗教이든 종교를 갖는 傾向이 增加하고 있으며, 40代 以上の 既成世代일수록 宗教中에서 佛敎, 儒敎, 天道敎 等 東洋傳來의 종교를 믿는 傾向이 있고, 30代이하 젊은 世代일수록 宗教中에서 基督教, 天主教 등 西歐趣向의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西歐指向의 基督教을 신봉할수록 合理的, 批判的 思考와 行動을 하는 社會意識을 갖고 있다.

그리고 解放이후 試行錯誤의 과정속에서 한국인은 直接參與에 의한 政治指導者 選出과 西歐的 觀念의 民主化意識이 王朝政治의 傳統的 認識아래 그 나름대로 土着化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東洋的 傳統위에 西歐的 個人自由와 表現, 參與의 自由를 극대화하는 思潮속에서 높은 學歷水準과 産業化, 開放體制의 구축으로 개인의 民主政治 意識이 定着化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며 外形的 社會政治運動도 그런 方向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西紀 2000年代에 40代의 既成世代로 韓國社會의 中樞的 役割을 遂行할 20代 前後의 젊은 世代는 大韓民國의 國家正統性 確立에 필요한 要素로서 제일 높이 강조하는 것이 民主主義 確立이며 經濟力 向上, 反共·庶政 刷新, 福祉社會順으로 되어 있다. 韓國人의 政治意識이 參與, 權利主張, 統一 安保 등으로 大別할 수 있으나 그 나뉠대로 國內·國外 政治意識에 충만해 있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의 當면 危脅要素에 대해서 韓國社會의 어떤 階層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큰 危脅要因으로 北韓을 들고 있으며, 다음은 物價高, 人口環境, 貧富隔差, 內部政治矛盾, 不義不正 順으로 들고 있다. 北韓의 危脅을 國外的 軍事安保 危脅으로 본다면 나머지는 國內問題에 關聯되어 있으며, 거의 7割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單一危脅要素로 北韓의 南侵危脅이 제일 큰 比重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要素는 결국 國內問題이며 國內問題가 韓國人의 政治意識에 깊은 影響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世代일수록 이러한 意識傾向은 높아져 가고 있다.

社會의 各 構成員이 集團心理로 融合했을 때는 社會全體의 政治體制와 理念으로 表現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政治意識은 社會意識과 聯關되어 있어 政治體制의 性格에 따라서는 社會構成員의 成長過程에서 특정 社會規範과 政治理念·體制에 맹종하게끔 선전·선동 등 外的 要因으로 誘導하는 경우가 있어 共產政治體制나 獨裁社會에서는 多元化된 生活과 政治意識을 이런 方法으로 抑壓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社會나 獨裁社會에서 政治意識의 一元化를 위해 指導者 批判禁止教育, 初等教育課程에서 政治意識 醇化教育, 大衆動員, 象徵造作 등 宣傳手段을 大

規模的으로 效果있게 사용하고 있다.

北韓은 社會主義憲法에서 보듯이 基本的으로 막스·레닌주의에 입각한 社會主義 國家建設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으며 經濟에 있어서도 生産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이므로 北韓住民의 意識構造와 統一方式, 軍에 대한 役割期待 등에 있어서는 個人主義, 自由市場經濟, 財産의 個人所有를 基本으로 하고 있는 韓國과는 상당한 意識構造의 差異를 나타낸다.

北韓은 「人民民主主義憲法」에 의해 1948年 9月 9日 政權이 創建된 以來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을 위한 北韓政權의 革命鬭爭 계속, 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 確保, 社會主義憲法과 社會主義制度 強化를 다짐한 바 있다. 金日成은 1972年 12月 25日 最高人民會議 第五期 一次會議에서 「社會主義憲法の 制定으로 共和國政府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새로운 武器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 人民은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와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鬭爭에서 確固한 法的 擔保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社會主義制度 공고화를 위한 勞動規約, 憲法制定들의 制度的 裝置外에 北韓板 막스·레닌주의인 主體唯一思想을 강조하면서 共產主義 政治社會意識化를 強調하고 있다.

北韓 勞動黨 規約이나 綱領등에서 다음과 같은 政治社會意識化의 象徴的 宣傳用語는 反復되어 나타나고 있다. 「朝鮮 勞動黨은 祖國의 自主·平和統一路線을 貫철하며, 祖國의 統一을 위하여 朝鮮人民의 철천지 원수인 美帝國主義者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日本 軍國주의를 반대하며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 官僚輩들의 傀儡政權을 타도하자, 美帝國主義의 四肢를 절단하고 國際帝國主義를 반대함으로써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 공

동위업의 勝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鬪爭하자」등은 막스·레닌주의, 프로테타리아 國際主義, 反帝鬪爭의 脈絡 등에서 北韓住民의 政治社會意識이 說明될 수 있다.

그리하여 南北韓 統一方案의 比較에 있어서도 北韓住民은 戰爭에 의한 統一에 64%가 應答하고 있어 韓國人の 11.9%에 비하여 현격한 意識構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계속적 政治思想敎育과 閉鎖體制下에서 形成된 住民들의 政治社會意識 패턴은 北韓의 基本 政治路線과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幼兒時節부터 好戰的 共產革命思想을 주입하고 하나는 全體를,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치밀한 組織生活로 北韓住民을 革命敎養化 하면서도 敎祖的 共產理念, 父子世襲, 과도한 組織動員에 대한 屢證과 다양한 消費品의 質的向上要求 등으로 北韓內部에서는 理念體制가 批判, 怠業, 反體制運動이 惝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指導階層에서 惹起된 政治的 葛藤, 政治指導路線에 대한 道忒과 夙淸으로 證철된 反應은 公式的으로 表明된 黨總和報告書, 新年辭, 政權創建 記念辭, 最高人民會議 報告書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一般市民階層에서 欲求不滿의 增大로 인한 소위 內部的 暗害策動分子가 理念體制 挑戰因子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公式的으로 提起되기는 '80年代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고 있다.¹²⁾

家庭, 學校, 組織生活 體制理念에 따른 北韓住民의 意識構造와 行動樣式은 결정되어 韓國人の 그것과 根本的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東洋文化圈의 歷史 價値體系라는 環境에 南北韓의 意識構造와 行動樣式은 制約을 받게되고 상이한 理念體制內이긴 하지만 政治理念과 社會體制的 變革과 發展에의 市民

註 12) 金日成 自身이 新年辭에서 內部暗害策動分子 制裁에 特別한 政策的 關心을 보이고 있다. 「김일성신년사」, 1980-1986.

的 要求는 그 기본맥락에서 공통성을 發見하게 됐다.

특히 北韓의 경우는 父子世襲이건 集團指導體制이건 政權交替가 1990年代 初까지 운곽이 뚜렷해질 것이며 이 期間 동안에는 國內外的 不安要因을 극소화할 것이 豫想된다. 또한 必須的인 重化學 技術開發과 輕工業을 위시한 消費品 生産에서 西歐 資本技術의 導入과 88올림픽 參席與否, 中·蘇의 對韓國과의 關係進展등 北韓으로 하여금 北韓의 對外·開放化政策의 選擇에 있어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韓國 역시 平和的 政權交替와 持續的 經濟成長 등으로 1990年代에는 南北韓 모두 理念體制面에서 共存的 競爭時代가 될 것으로 보아 이러한 狀況은 南北韓 특히 北韓住民의 意識構造와 行動樣式에 커다란 變化를 招來케 할 것이다.

그 變化의 時刻에서 相異하게 展開되어 온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와 行動類型을 國家觀, 統一觀, 政治·軍事觀, 社會觀으로 나누어 究明해 본다.

3 . 國 家 觀

비록 外勢의 異質的 共產主義理念과 政治體制를 도입하였지만 40餘年の 세월동안 이념체제면에서 比較認識의 準據들이 없는 폐쇄적 상황속에서 規格화된 上意下達의 共產主義 敎化와 조직생활로 그 나름의 國家觀과 體制意識이 정착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민 역시 상대적인 관점이지만 서구산업사회의 多元化된 國家觀과 體制支持意識이 형성되고 있다.

南北統一後의 國家體制에 대해 韓國民들은 共產主義體制 이외의 體制, 混合體制, 資本主義體制등을 선호하여 7할이상이 資本主義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統一後의 體制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北韓住民은 비록 歸順人士의 의식조사 結果이지만 北韓에 거주했을 때의 狀況에서 인식행동유형을 개진한 것으로 해석할 때 6할 미만이 共產主義體制를 統一後의 體制로 수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韓國民中 大都市 出身, 젊은세대, 大學卒業者, 大學生, 專門職 從事者 일수록 統一後 南北韓 體制를 混合體制일 것으로 보는 自由奔放한 (Liberalist view) 의식유형을 갖고 있으며 北韓은 最近에 일수록 共產主義 體制여야 된다는 見解가 높으며 同時에 混合折衷體制여야 된다는 見解도 나타나고 있다<表 3. 4>.

<表 3 > 南北韓의 統一後 體制 比較表

統一後 體制	大 韓 民 國	北 韓
資本主義 自由民主 體制	76.3	18.2
南北韓 混合 體制	12.5	21.2
共產主義 體制	0.5	54.8
共產主義 以外的 體制	8.6	4.8

〈表 4〉 北韓의 統一後 體制와 歸順年代와의 관계

歸 順 年 代	共 産 主 義 體 制	混 合 體 制	資 本 主 義 體 制
45 ~ 53 年	22.2	22.2	44.4
54 ~ 60	40.0	22.9	31.4
61 ~ 70	70.6	17.6	8.8
71 ~ 80	66.7	27.8	5.6
81 年 以 後	75.0	12.5	0.0

45 年以後 50 年代까지는 資本主義體制가 統一 後의 政治社會體制여야 된다고 보는 見解가 높았으나 60 年代 以後부터는 共產主義여야 된다는 見解가 높아지고 있고 混合折衷體制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表 5〉 韓國大學生의 體制 認識度

區 分	%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優越	89.4
共 産 主 義 體 制	3.5
생각해 본일 없음	7.1

한편 韓國大學生의 體制支持度에 대한 認識性向은 大部分의 大學生은 (9 할 程度) 自由民主主義體制가 優越하다고 믿으며 3.5% 程度가 共產主義體制 優越性을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경향은 美國등 多元化된 産業社會에서도 있는 現象이다〈表 5〉. 그러나 政治體制의 矛盾, 貧富隔差, 富의 不均衡된 配分, 社會의 누적되는 부조리 증가등은 希求하는 代替理念體制로서 共產主義理念·體制를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젊은세대나

低學歷 低所得 階層의 政治性向을 社會葛藤의 次元에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北韓住民의 경우 金日成 父子 世襲體制의 支持度는 보통상태에서 전적 지지성향까지 합쳐 약 5할을 차지하고 있고 北韓體制支持度는 약 6할이 보통이상 전적 支持度를 나타내고 있다<表 6, 7>.

< 表 6 > 金日成, 金正一 世襲體制의 支持度

區 分	人 員	%
無 應 答	12	11.5
전 적 支 持	21	20.2
약 간 支 持	21	20.2
보 통	7	6.7
약 간 저 항	24	23.1
전 적 저 항	19	18.3
計	104	100.0

< 表 7 > 北韓體制에 대한 住民의 支持度

區 分	人 員	%
無 應 答	3	2.9
전 적	23	20.1
약 간	23	22.1
보 통	14	13.5
약 간 저 항	32	30.8
전 적 저 항	9	8.71
計	104	100.0

支持度の 性向에서 最近에 올수록 시기가 지나면서 支持도가 높아지는 傾向이 있으나 반면에 강한 저항의식이 自生하는 傾向도 있다<表 8, 9>.¹³⁾

<表 8 > 北韓體制 支持도와 年代와의 關係

歸順年代	약간저항	전적저항	보 통	약간지지	전적지지
45 ~ 53	44.4	33.3	11.1	0.0	0.0
54 ~ 60	40.0	8.6	8.6	28.6	8.6
61 ~ 70	26.5	5.9	17.6	23.5	26.5
71 ~ 80	11.1	5.6	22.2	22.2	38.9
81 年以後	42.9	0.0	0.0	0.0	59.1

<表 9 > 世襲體制 支持도와 年代와의 關係

歸順年代	약간저항	전적저항	보 통	약간지지	전적지지
45 ~ 53	33.3	44.4	0.0	11.1	11.1
54 ~ 60	28.6	25.7	2.9	14.3	11.4
61 ~ 70	23.5	5.9	5.9	26.5	20.6
71 ~ 80	11.1	22.2	11.1	22.2	33.3
81 年以後	0.0	14.3	28.6	14.3	42.8

南北韓住民은 體制支持에 있어 多少問의 강도는 있으나 體制支持의 性向이 점차 각기 堅固化 되어가는 傾向이 있고 階層間的 差異, 時期別 支持도가 달라지면서 南北韓을 보는 觀點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註 13) 關係分析은 x^2 檢証變型으로 橫(low)란만 分析한 것임.

大韓民國의 國民 7할 以上은 北韓을 아직도 閉鎖獨裁社會로 본다. 그러나 그의 3할 程度는 共產圈 開發途上國, 中進國등으로 보아 北韓을 變化하는 共產圈 發展途上國으로 보는 客觀的 變化의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렇게 보는 國民은 주로 젊은世代中の 大學生이나 大學以上의 學歷을 가진 階層이다(表 10).

〈表 10〉 南北韓의 相互 觀點比較

相互 觀點	南韓의 北韓觀	北韓의 南韓觀
閉鎖 獨裁社會	73 %	
共產圈 開發途上國	17.3	
共產圈 中進福祉國	2	
其他	7.8	
	} 27 %	
資本主義 發展途上國		9.6
物資가 豊富한 살기좋은 國家		18.3
		} 27.9 %
가난하고 비참한 美帝國 殖民地		72.1 %

한편 歸順人士의 設問 面接調查를 통해 본 北韓住民의 韓國觀은 7할 程度가 가난하고 비참한 美帝國主義 殖民地로 보고 있다. 그러나 3할 程度는 資本主義發展途上國 혹은 物資가 豊富한 살기좋은 國家로 보기도 하며 韓國을 肯定的 變化의 視覺으로 보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어 南北韓住民 3할 程度가 相互變化의 視覺에서 南北韓을 照明하는 傾向은 類似點이 있어 특이하다.

아울러 戰爭勃發時 취할 행동유형을 보면 즉각 最前方 參與意思是 北韓住民이 높으나 前方參與와 주어진 職務에 充實하겠다는 廣義의 參與意志까지

包舍하여 國家安保 危機時 最前方 最前方 參與意志가 韓國은 8 할에 達하
 며 北韓은 6 할程度이다. 아울러 國家危機時 그때까지 決定하겠다던가 피
 난이나 海外逃避 傾向을 가진 住民은 韓國은 16 %程度이나 北韓은 40 %
 程度가 된다.

이 狀況은 北韓이 開放化되고 설사 戰爭이 勃發하여 時日이 지나면서
 北韓住民이 韓國을 알고 他世界社會와 比較認識이 成熟될 때 의식과 행동
 유형은 더욱 變化될 것이다.

< 表 11 > 戰爭勃發時 南北韓住民의 행동유형 比較

行 動 類 型	大 韓 民 國	北 韓
最 前 方 參 與	18.4 %	32.0 %
주어진 職務에 充實	65.7 %	25.0 %
그때 가서 決定	11.9 %	30.8 %
避難이나 海外逃避	4 %	9.6 %
其 他		2.9 %

< 表 12 > 南北韓이 싫어하는 나라 比較

國 家	大 韓 民 國	北 韓
北 韓	44 %	
日 本	24 %	29.8 %
蘇 聯	22 %	3.8 %
中 共	8 %	1.9 %
美 國	2 %	38.4 %
韓 國		12.5 %

南北韓은 6.25 動亂을 거치고 安保危害要因을 經驗的으로 認識하거나 인위적 선전으로 인하여 相互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韓國民은 北韓, 日本, 蘇聯, 中共 順으로 보며 北韓住民은 美國, 日本, 韓國, 蘇聯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11, 12〉.

특이한 意識性向은 南北韓 모두 두번째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日本을 들고 있는 점이며 이는 歷史的으로 응어리진 民族的 感情의 소산이 아닌 가 하며 日本과 南北韓關係面에서 南北韓이 民族的 感情에서 단결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하겠다. 北韓의 경우 黨·政의 指導階層이나 國家機關의 從事者일수록 美國을 싫어하며 生産職, 農漁民, 自由業 從事者등 일수록 北韓의 實利追求上 北韓의 對美關係는 政治指導層의 政策變換에 따라 可變的 일 것임을 알 수 있다.

社會政治義識은 政府의 人爲的 메스콤을 통한 宣傳·造作에 기인하는 것도 큰 것인바 正確한 情報와 事實에 立脚한 政府의 發表는 國民의 信賴度를 높이는 것이지만 全體 比較가 될 수 없는 狀況에서는 客觀性, 正確度의 基準設定이 어렵고 國民의 對政府 發表信賴度를 測定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점을 考慮하면서 南北韓을 比較하면 政府發表에 全的 信賴를 보이는 것은 韓國民과 北韓住民이 거의 비슷한 것이 特性이며 (26.8%와 25%) 약간 信賴까지 합하여 韓國民은 9할, 北韓은 4할 程度가 믿으려하는 傾向이 있다〈表 13〉.

이러한 國家觀과 體制認識 傾向에서 細部的으로는 社會的背景과 그로 인한 階層別 觀點이 다르지만 上位變因을 理念과 體制, 6.25를 계기로한 南北韓의 軍事對峙 安保意識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南北韓住民의 政治·社會意識과 行動類型에 가장 큰 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安保要因

은 統一觀, 社會觀, 民軍關係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表 13〉 政府發表 信賴度에 對한 南北韓 比較

區 分	大 韓 民 國	北 韓
全 的 信 賴	26.8 %	25.0 %
若 干 信 賴	48 %	17.3 %
普 通	-	12.5 %
若 干 不 信	19.5 %	24.0 %
全 的 不 信	5.8 %	20.1 %

4. 統 一 觀

南北韓의 바람직한 統一方案에 있어 韓國人은 8割 以上이 南北韓當事者의 妥協인 民族的 力量과 유엔 및 強大國의 仲裁로 표현된 國際關係의 協助等 平和的 接近方策을 들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4割 정도가 同意하며 대신에 戰爭을 통한 統一 接近 方法을 6割 以上이 同意하고 있어 統一 接近方式에 있어 높은 好戰性을 엿볼 수 있다.<表 14 >

<表 14> 南北韓의 바람직한 統一方案의 比較

區 分	大 韓 民 國	北 韓
南北 양쪽 만의 妥協	46.9 %	26.2 %
유엔 및 強大國의 仲裁	41.1 %	10.6 %
戰爭에 의한 統一	11.9 %	63.5 %

<表 15> 北韓住民이 보는 南北統一의 先決要件

區 分	人 員	%
無 應 答	5	4.8
美 軍 撤 收	70	67.3
南北韓 交流協力	28	27
聯 邦 制 實 施	1	0.96
計	104	100

이러한 好戰性은 南北韓 統一의 先決要件으로 美軍 撤收를 제일 높이 드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表 15 >

그러나 진정한 意味의 統一希求原因을 알아보면 南北韓主民의 共通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統一이 되면 個人的 生活과 家庭 및 職場生活에 보다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見解에 韓國人은 8割以上, 北韓人은 7割以上이 同意하고 있으며 國家的 利益이라고 보는 巨視的, 公式的 觀點에 一致하는 見解는 南北韓主民 모두 2割 内外에 머물고 있어 統一이 個人的 自我成就에 깊은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表 16 >

〈表 16〉 兩北韓의 統一과 個人生活과의 關係 比較

區 分	大 韓 民 國	北 韓
나의生活에 보다 나은 條件 提供	42.6 %	45.2 %
家庭과 周邊에 보다 나은 條件 提供	40.4 %	28.9 %
祖國平和와 發展에 만 寄與	17 %	24.0 %

특히 北韓의 境遇 醫師, 敎員, 記者, 文藝人, 技術者等 專門職 從事者일 수록 統一을 자기 個人生活이나 家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黨·政 要員, 軍人, 學生 等은 統一이 祖國發展과 平和에 寄與한다는 傾向이 相對적으로 높아 後者의 경우 人爲的, 政策的 配慮에 의해 形成된 意識 形態임을 알 수 있다.<表 17 >

<表 17 >

北韓의 統一・個人生活과 職業과의 關係

職 業	統一은 個人生活에 도움	家庭과 周邊에 도움	祖國發展 平和에 寄與
黨 · 政 權 要 人	53.0 %	26.7 %	20.0 %
軍 人	41.6 %	26.7 %	31.7 %
學 生	0.0	80.0 %	20.0 %
技 術 者	100.0 %	0.0	0.0
醫師 · 教員 · 記者 · 文藝人	100.0 %	0.0	0.0
其 他	42.9 %	42.9 %	14.3 %

5. 政 治 軍 事 觀

南北韓의 意識行動類型에 큰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武力對峙의 軍事安
保狀況을 들 수 있다. 特히 戰爭勃發의 威脅與否일 것인데 南北韓은 漸
次 休戰線 一帶의 軍配置와 軍事運用을 戰爭抑止(Deterrence)의 機能으
로 轉換한다고 볼 수 있다.

戰爭抑止는 現存 國力과 軍事力の 優位, 戰爭結果의 效果豫測에서 得失
을 考慮한 戰爭포기등의 現在的 狀態라 할 때 南北韓의 軍事力은 점점
戰爭抑止力の 役割로 作用하는 傾向이다.¹⁴⁾

그러한 脈絡에서 볼 때 核武器의 使用은 戰爭抑止의 效果的 方便으로
볼 수 있다. 南北韓 住民의 核武器使用 與否에 대한 態度를 보면, 韓國
國民은 核武器使用은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 안된다(26%), 戰爭抑止用으로만
存在해야 된다(54%) 등으로 8割이 核武器使用에 留保의이고, 北韓住民은
거의 3割이 核武器使用을 절대 反對하며, 戰爭抑止用으로 存在해야 된다
는 見解(38.4%)를 包含 7割 정도가 留保的 傾向이어서 결국 南北韓
모두 核武器使用을 戰爭抑制 役割로 制限하거나 實質的 使用을 反對하는
입장이다.<表 18 >

註 14) Douglas J. Murray and Paul R. Viotti(eds.), The Defense Policies of Nations(Baltimore, Maryland : Johns Hopkins Univ. Press, 1982),
PP. 477 ~ 492.

〈表 18〉 南北韓의 核武器 使用與否 比較

核武器使用與否	大韓民國	北 韓
核武器使用은 절대안됨	26 %	29.8 %
戰爭抑止用으로 存在	54 %	38.4 %
危機時 使用	13 %	22.1 %
全面戰, 制限局地戰使用	7 %	5.7 %
無 應 答		3.8 %

〈表 19〉 南北韓 豫備戰力の 評價

評 價 內 容	大韓民國豫備軍	北韓勞農赤衛隊
즉시 現役要員化	25 %	49.5 %
現 役 化 未 洽	43 %	28 %
地域警戒에 도움	29 %	13.5 %
쓸모없음 (無應答)	3 %	8.7 %

現役외에 南北韓의 豫備戰力인 郷土豫備軍과 勞農赤衛隊의 戰力評價에 있어 韓國의 豫備軍의 戰時現役要員化 정도보다 北韓의 豫備戰力の 現役要員化의 可能性이 相對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表 19〉.

따라서 韓國軍의 豫備戰力を 強化하여 郷土豫備軍의 숫적우위의 確保는 물론 裝備向上, 기존의 現役, 警察力, 民間組織과 연결을 이룸으로써 實質的 動員能力과 戰術運用的 강도를 높여 對北 戰爭抑止力向上을 위한 努力을 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의 國民이 軍이라는 직업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대해 韓國의 豫備役出身將兵은 사회적으로 높이 인정, 혹은 약간 인정받고 있다는 包含 5割 以上이 직업군을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있으며, 한편 北韓에서의 귀순인사를 통한 北韓에서의 軍의 사회적 인정도는 8割 以上이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0.>

이것은 폐쇄된 北韓社會의 住民으로 하여금 北韓軍이 계속적인 공산혁명 前衛로서 상징화되도록 政治宣傳敎化作業으로 인식시킨 데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에서와 같이 軍經歷은 黨의 上層部로 진입하거나, 黨員이 되는데에, 또는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效果的인 方便이므로 사회적으로 높이 評價받는 것이다.

<表 20> 南北韓의 軍의 社會的 認識度 比較

認 識 內 容	大 韓 民 國	北 韓
높 이 인 정 받 음	17 %	56.7 %
약 간 인 정 받 음	34 %	25.0 %
보 통	37 %	10.5 %
인 정 받 지 못 함	12 %	4.8 %

<表 21> 南北韓 軍의 士氣比較

士 氣 程 度	大 韓 民 國	北 韓
아 주 높 다	12 %	29.8 %
약 간 높 다	49 %	30.7 %
보 통	31 %	21.1 %
약 간 낮 다	6 %	11.5 %
아 주 낮 다	2 %	3.84 %

한편 한국군은 서서히 産業社會의 직업군화 傾向이 짊어지면서 物質 補償면에서도 他社會職種에 뒤지지 않게 되고 특히 軍職業의 社會轉移가 가능함에 따라 社會的 認定度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軍 士氣면에 있어서는 사기가 보통정도이다에서 부터 아주 높다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바 北韓軍에 대한 과도한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表 21 >

그리고 北韓軍은 金日成 死後와 은퇴시기에 대두되는 후계자 선정에 있어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北韓軍은 거대한 계층제 官僚조직이어서 上층부의 指揮階層이 政權交替의 공백기에 軍經驗이 없는 金正일이 指導力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60대의 6.25 참전세대, 50대의 經濟發展 역군이 소외감을 느끼고 40대 중반의 金正일 지도력에 도전할 때 軍의 개입은 높은 확율을 가지고 정치전반에 개입할 것이다. 北韓軍의 정치개입은 北韓 政治變化 뿐만아니라 南北韓 관계에도 깊은 影響을 줄 것이다.

6. 社 會 觀

南北韓 市民의 意識형성의 主要 要因은 異質的 理念體制의 定着化와 6.25가 가져다준 切實한 軍事的 大峙상황에서 비롯하는 安보 우선심리를 들 수 있다. 아울러 後續要因으로는 한국은 資本主義 産業國家로서 北韓은 共產主義 産業國家로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産業社會的 特性에 주목해야 한다.

〈表 22〉 南北韓 當面 危脅 要因 比較

要 因	大 韓 民 國	北 韓
북 한 의 위 협	<u>29.5 %</u>	
물 가 고, 경 기 침 체	26.8	
내 부 정 치 모 순	16.7	
인 구, 환 경 문 제	14.5	
부 정 부 패	12.5	0.9 %
✓ 고 된 조 직 생 활		38.8
✓ 물 자 부 족		26.2
세 습 체 제		1.9
✓ 남 한 의 위 협		<u>32 %</u>

南北韓 住民이 認識하고 있는 各자의 社會에 對한 威脅要因으로는 戰爭이 단일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한국인은 北韓의 南侵 (29.5 %) 을 北韓인은 韓國의 北侵 (32 %) 을 가장 큰 威脅요인으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韓國의 경우 物價高와 景氣沈滯, 政治不安定, 人口 및 環境, 부

정부패순으로 들고 있으며, 北韓은 고된 조직생활, 물자부족, 세습체제의 모순, 부정부패순으로 나타내고 있다.(表 22)

특히 南北韓의 相互侵略은 軍事·安保面에서 느끼고 體驗하는 危脅要因이라면 나머지 물가고, 정치모순, 부정부패, 고된 조직생활, 물자빈곤, 세습체제 모순 등은 對內 不安危脅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상호 侵略의 潜在的 危脅이 南北韓 전체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긴하나 계량적 비중으로 볼 때 거의 7할 정도가 對內 不安要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사회·정치의 持續的인 改善·發展이 南北韓 자체의 안정, 스스로의 相互 戰爭抑止力の 確保 그리고 民族主體的 統一力量을 강화하는 중요방안이 된다 할 것이다.

세부적인 차이는 理念과 體制의 政策追求 差異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상호 脆弱性 認識속에서 스스로를 補完 強化해야 할 것이다. 국내 불안 위협요인중 남북한이 대조적인 것은 경제면에서 韓國은 물가고와 景氣沈滯인 반면 北韓은 물자빈곤이며, 社會面의 해결사항은 한국은 人口爆發, 環境汚染이고 북한은 고된 조직생활을 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政權의 政策管理보다는 政權의 승계절차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韓國은 특히 대학생을 중심한 젊은 세대는 정치모순을, 북한인은 세습체제 모순에 두고 있다.

남북한에 있어서 정부 발표에 대한 國民의 信賴度를 보면 북한 주민의 경우 전적으로 信賴(26%), 약간 信賴(17%)한다를 包含 4할(43%) 정도가 북한정권이 발표하는 매스컴의 내용을 믿는다는 견해이며 나머지 5할정도의 주민은 약간 不信(25%), 전적 不信(21%)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통의 水準으로 믿는다는 견해를 除外하고 보면 북한 주민은 정부 弘報와 言論 發表內容에 不信과 信賴가 크게 보아 비슷한 정도이나

不信하는 傾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인은 전적 信賴(26.8%), 약간 信賴(48%)로서 7할 이상이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信賴한다는 傾向이며 나머지(25.3%)는 불신하는 傾向이어서 상대적으로 한국주민이 북한주민에 비해 정부가 발표하는 對國民 弘報나 매스콤內容에 높은 信賴感을 표시하고 있다.(表 23)

〈表 23〉 政府發表의 信賴度比較

구 분	대 한 민 국	북 한
전 적 신 뢰	26.8 %	26 %
약 간 신 뢰	48 %	17%
보 통		10%
약 간 불 신	19.5 %	25%
전 적 불 신	5.8 %	21%

청소년의 사회생활속에서 자신의 주변문제에 대한 평소의 의논대상자로서 한국 청소년은 親舊에게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48.75%) 비해 북한 청소년은 부모를 들고 있다. 共通的 事項은 학교의 스승과 선배를 의논대상자로 생각하는 면에 있어 남북한 청소년 모두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表 24)

북한의 청소년이 부모를 의논대상자로 제일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은 북한 노동당의 組織統制와 감시속에서 허심탄회한 개인의 고충과 심정개진에 있어 역시 血緣으로 맺어진 가정의 유대가 기본이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社會 犯罪類形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犯罪는 절도

<表 24 >

南北韓青少年의議論相對者比較

相對者	大韓民國	北韓
父 母	18.52 %	39.4 %
親 舊	48.75 %	35.5 %
兄 弟	9.6%	4.8 %
黨 幹 部		8.7 %
先 生 님	3.17 %	3.8 %
先 輩	3.14 %	3.8 %

죄등 強力犯이라면 북한 역시 最近에 와서 정치적 사상 범죄보다는 산업사회와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도죄, 당정간부의 직권 남용등이 빈번히 그리고 비중이 큰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表 25)

<表 25 >

北韓에서 많이 발생하는 犯罪

구 분	인 원	%
무 응 답	41	41
절 도 죄	43	40.0
당 정 간 부 직 권 남 용	19	18.0
노 동 자 태 업 죄	1	1.0
계	104	100

<表 26 >

犯 罪 發 生 頻 度

범죄유형 \ 빈도수	1)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2)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3) 가끔 발생하지 않았음	4) 자주 발생하였음	5) 모르겠음	무응답	계
가. 당유일사상 지도체 제위배행위, 사회주의 건설행위, 당정책 순결성 훼손행위 등 반국가적 범죄	3	11	51	28	7	0	100
나. 국가재산, 사회협동 단체재산 등 공공재산 절취 및 파괴죄	4	7	46	35	8	0	100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태만, 월권, 뇌물수수, 공금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기밀누설 등 공무상 범죄	7	14	43	26	9	1	100
라. 항명, 하극상, 미귀탈영, 복무장소이탈 등 군사상 범죄	4	19	50	16	9	2	100
마. 강패, 절도, 소매치기, 반당, 반혁명행위 등 청소년범죄	8	15	48	22	7	0	100

最近 북한 노동신문의 사회논조, 노동당과 정무원의 사회범죄중 절도죄, 횡령죄, 청소년 폭력, 성범죄, 직권남용 등의 자본주의적 범죄유형과 반혁명 부화뇌동 현상을 심각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반국가적 범죄보다 국가공공재산 절취등 물질적 범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6)

註 26) 呂錫昊,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北韓住民意識構造變化實態」, 國土統一院, 1983. p.101.

7. 南北韓의 政治社會意識과 行動類型의 展望

분단 40년간 北韓에 도입된 外勢의 理念體制인 막스·레닌 共產主義理念과 그
에 따른 체제는 그 나름대로 定着되어 이제는 主體唯一思想體制라는 北韓
版 막스·레닌주의가 北韓주민에게 수용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美軍政期를 지나 그 나름으로 歐美資本主義體制와 自由民主主義를
理念으로 하여 理念體制를 定着시키고 있다.

한편, 傳統的 儒佛仙 文化體系內에서 南北韓의 理念과 體制에 수용되면서
남북한의 정치·사회의식형성에 거시적 獨立變數로 作用하고 있다. 그러나
6.25 戰爭은 南北韓의 戰爭危險과 상호불신, 군사안보의 絶對優位心理라는
經驗的 媒介變數로 등장하여 남북한 주민의 사회·정치생활의 사고·행동에
전천후의 의식·무의식적 影響을 주면서 막심한 피해의식과 적대의식의 심
리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행동유형은 자연이 思考의 單調性, 行動의 硬直性으로 나타
나기 마련이며 東洋的 禮儀崇尚傳統과 결합되어 多元化, 自律化, 動的인 行
動樣象 성숙에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美·日·中·蘇의 韓半島 現象維持와 남북한의 戰爭抑制力의 向上
속에서 한국의 西歐的 産業社會化의 진행과정에서 파생된 肯定的 結果로서
多元化, 機能의 專門分化, 社會下位組織의 上向移動과 自律化 傾向이 성숙되
어 가고 個人主義 思考와 多樣한 自我實現의 傾向이 심화되면서 흔히 볼
수있는 逆機能的 社會문제로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사회의식
의 전개양상은 北韓의 狀況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北韓의 정치·사회체제의 변모와 함께 共產주의 산업국가의 社

會體制 開放化와 心理類型 그리고 逆機能現象을 동시에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정권교체, 지속적 경제성장, 국제 환경에서 肯定的 適應으로 서서히 共存的 競爭시기에 접어 들면서 정도의 차이는 비록 심하지만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주민의 意識性向과 行動類型이 사회 환경과 還流되어 사회체제가 도전속에서 변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남북한의 異質化가 심화되어 가는 분단의 민족적 悲劇속에서도 平和統一에의 肯定的 社會要因으로 볼 수 있고 人爲的으로 擴大強化시킬 必要가 있을 것이다.